만흥매립장 사용 연장 협의 실패…쓰레기 대란 오나

주민협의체 영구적인 사용 반대
"사용 종료 안하면 물리력 동원"
여수시, 지원기금 인상 등 협의 계속

'여수 쓰레기 대란'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3월 말로 사용기간이 끝난 만흥위생매립장 사용 연장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동 중단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31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와 만흥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는 최근 회의를 열어 위생매립장 사용 연장 여부를 협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여수시는 주민지원협의체에 연간 2억원에 달하는 주민 지원기금을 4억원으로 인상하고 매립기한을 연장하면서 사용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주민지원협의체는 여수시가 영구적으로 쓰레기를 매립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이날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가 3월 말로 매립장 사용 종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물리적 방법을 동원해 매립장 사용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지원협의체는 "만흥 위생매립장의 매립용량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립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2~3일가량 더 지켜본 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물리력을 동원해 막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권오봉 시장은 지난해 6월 사랑방좌담회에서 올해 3월 사용 종료를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여수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반발에도 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전체 매립 용량 325만㎥ 가운데 213만㎥가 매립돼 68%의 매립률을 보여 앞으로 114만㎥를 더 매립할 수 있고 다른 매립장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시점에서 폐기물이 매립장에 반입이 안 돼 쌓이면 시민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만흥 위생매립장은 1997년 운영을 시작하면서 주민들과 24년간 사용하도록 협의했다. 여수시는 매립 기한이 도래했지만 매립용량이 남아 사용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도 주민과 협의해 사용하도록 통보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 만흥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지난 31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립장 사용 기간 연장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GS칼텍스 어르신 사랑나눔 '에너지박스' 100개 전달

지역 대표기업 GS칼텍스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나눔에 나섰다.

31일 GS칼텍스 여수공장에 따르면 최근 여수시 충무동·광림동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먹을거리를 담은 '에너지박스' 100개를 전달했다. 〈사진〉

무료급식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의 홀몸 어르신들을 돕고자 '에너지박스'를 준비했다. 상자에는 50끼니 분량의 쌀 5kg을 비롯해 라면, 배추김치, 조미김 등 반찬거리와 간식 등 먹을거리가 담겼다.

GS칼텍스 봉사자들은 상자를 정성껏 포장해 충무동·여수시노인복지관 관계자들과 함께 홀몸 어르신 가정 100세대를 방문해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도 세심하게 살폈다.

GS칼텍스는 이와 별도로 사랑나눔터 운영 중단 시점에 시설 이용 어르신 350여명에게 긴급 구호식품을 전달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여수시 485억 긴급 민생지원…4만6000가구에 40만~60만원

도비 매칭사업으로 4월 중 집행

여수시가 485억원 규모의 긴급 민생지원을 통해 서민경제 회복에 나선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27일 긴급 민생지원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저소득층 민생지원과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지원 등을 위해 48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권 시장은 "일자리 중단과 소비 위축으로 서민경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이 더욱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긴급지원 기본방향은 민생활력과 경영회복에 맞췄다.

정부와 전남도의 추경 매칭사업 제외·누락자를 추가 발굴해 지원한다. 중위소득 일정비율을 적용하고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이번 지원 대책의 핵심(긴급생활비 지원)은 도비 매칭사업이다.

전남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전체 시민 12만4000가구의 37%인 4만6000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60만원 정도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긴급생활비 제외·누락자를 위해 중위소득 100~110% 이하, 재산가액 2억원 이하의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대리기사 등 지원 사각지대도 살핀다. 지역 내 약 5000가구에 대해 40만~6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권 시장은 "전남도 지원 기준보다 대상 세대별 10만 원씩 추가 지원하고 집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우선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로 4월 중 우선 집행한 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시는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읍·면·동을 통해 신청받고, 확인 작업을 거쳐 지원한다. 지원금은 일정 기한을 정해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중위소득 75% 이하의 실직·휴직자에 대해 한시적 긴급복지 13억7000만원,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아동 1300여 명에 1인당 10만~20만원 등 가정양육수당 2억1000만원, 택시 종사자 1인당 50만원씩 7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1만3000여가구에 4개월간 가구원 수에 따라 총 40만~192만원 총 70억5000만원, 만 7세 이하 아동수당 56억3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상시고용 5인 이하인 1만3000여 업체에 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총 39억2000만원이 지원된다. 중소기업 발전자금 융자 규모 100억원과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 수수료 지원금 18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여수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여수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6월까지 연장하고 착한 임대료 감면 운동, 화훼농가 꽃 사주기, 농·수산물 판촉 행사, 농어민 공익수당 57억원의 4월 지급 등 선제적인 경기 부양책을 추진 중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대구·경북 농업인 힘내세요" 여수농협, 갓김치 800kg 지원

여수농협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돌산갓김치 800kg을 지원했다.

여수농협은 지난 30일 돌산갓김치 공장에서 박헌영 조합장과 고석민 상임이사, 직원 대표 등 여수농협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 농업인 돕기 '여수 돌산갓김치 물품 전달식'을 했다.〈사진〉

여수농협 임직원들은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구입한 여수 돌산갓김치 800kg을 택배로 대구·경북 농업인들에게 고루 전달했다.

박헌영 조합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에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한 대구·경북 농업인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자 직원들의 마음을 모았다"면서 "농업인 모두가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육아 고민 해결…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48억원 투입 웅천동에 3층 규모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난 30일 웅천동에 문을 열었다. 센터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육아지원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개관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정책에 발맞춰 권오봉 여수시장, 이찬기 여수시의회 부의장, 김종호 사회복지법인 베타니아 복지재단 이사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식으로 진행됐다.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비와 도비 14억원을 포함, 총 공사비 48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354㎡의 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섰다.

1층은 체험놀이실과 육아정보나눔터·시간제보육실, 2층은 장난감대여실, 3층은 다목적홀·교육실·프로그램실로 꾸며졌다.

센터는 원스톱 육아지원 서비스의 중심축으로서 영유아 부모들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회복지법인 베타니아 복지재단이 오는 2024년 10월까지 위탁 운영한다.

주요사업으로 영유아 부모들의 건강한 양육을 돕기 위해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비롯해 일사천리 양육정보 '여수형 보육헬퍼', 육아용품 나눔은행, 부모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정보가 취약한 농어촌 영유아를 위해 이동식놀이교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집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대체교사지원, 보육교직원 상담, 평가인증컨설팅 교육, 교육종사자 교육 등을 돕는다.

여수시 관계자는 "센터 개관으로 부모의 육아 부담이 크게 해소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도시로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맞춤형 육아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 웅천동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난 30일 문을 열었다. 〈여수시 제공〉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위를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옅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1566-9988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